

# 성 유대철 베드로

# 청담동성당

강남구 삼성로 720 (홈페이지: www.cdssd.org)  
 사무실: 02)3447-0750~1 팩스: 02)3447-0752

주 임 신 부 : 김민수 (이냐시오)  
 부주임 신 부 : 심 욱 (베드로)  
 부주임 신 부 : 방종우 (야고보)  
 전 교 수 녀 : 박정숙 (아그리피나)  
 최병애 (파우스티나)  
 이새름 (엘카나)  
 사 목 회 장 : 이우출 (예로니모)  
 연 령 회 장 : ☎ 010-7186-7222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3시(어린이 미사),	오후 7시
	일요일	오전 6시, 9시, 11시(교중미사),	오후 3시(중·고등부), 5시(일반), 7시(청년)
평일미사	월요일 / 토요일	오전 6시	
	화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고 해 성 사
	수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주 일 미사 전 30분
	목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평 일 미사 전 15분
	금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매 달 둘째주 목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
			유 아 세 례
			출수 달 첫째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관 면 혼 배
			매 달 둘째주 토요일 오후 5시

◎ 영명 축일 안내

• 7월 25일(목)은 본당 부주임 신부님이신 방종우 야고보 신부님의 영명 축일이며, 7월 31일(수)은 본당 주임신부님이신 김민수 이냐시오 신부님의 영명 축일입니다.  
 항상 기도 중에 본당 신부님들의 영·육간 건강하시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영적 예물 >

- 미사·영성체, 주모경, 화살기도: 각 10회
- 목주기도: 10단, 사제를 위한 기도: 10회 이상

• 축하식: 7월 28일(주일) 11시 교중미사

- ◎ 병자안수 축복식: 7월 28일(주일)교중미사 후
- ◎ 8월에는 성시간과 병자 영성체는 없습니다.
- ◎ 초등부 저학년 여름산악학교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 일시: 7월 26일(금) ~ 7월 27일(토) 무박 2일, 성당마당  
 • 대상: 만 6세 ~ 초등부 2학년까지  
 • 참가비: 1인당 2만원(※ 선착순 접수)  
 • 문의: 송 스텔라 (010-9636-2241)
- ◎ 중·고등부 청소년 여름캠프 (회비 5만원)  
 •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이!" (시편 133,1)  
 • 일시: 8월 9일(금) ~ 8월 11일(주일) 2박 3일  
 • 대상: 중·고등부 청소년 누구나  
 • 장소: 보광산 관광농원(충북 괴산)  
 • 문의: 안 마르첼리노 (010-4722-9504)
- ◎ 고3 수험생 및 대입 입시생을 위한 100일 기도  
 • 2020년 대입 수능을 앞둔 자녀들을 위한 100일 기도 모임에 참석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미리 신청 바랍니다.  
 • 예비모임: 8월 4일(주일) 교중미사 후, 1층 프란치스코 홀  
 • 시작일시: 8월 6일(화) 오전 9시 ~ , 지하 성가정방  
 • 문의: 성당 사무실 (02-3447-0750)
- ◎ 본당 단체 회의록 및 회계 장부 제출  
 • 본당 제 단체들(동호회 포함)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각 단체별 회계 장부를 상반기(6월말까지)기준으로 마감하여 회계 장부와 통장, 회의록을 7월 28일(주일)까지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청년 제 41차 꾸르실로 환영식  
 • 참가자: 유지희 라파엘라, 김하현 마르첼리노  
 • 교육: 7월 25일(목) 오후 3시~, 성당 출발  
 • 환영식: 7월 28일(주일) 오후 7시, 1층 프란치스코홀  
 • 문의: 배 베드로 (010-2720-1256)

## 축 첫 영성체

43명의 어린이들이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을 모십니다.  
 이 아이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7월 21(오늘) 11시 교중미사

강지원(테클라)	박 건(사도요한)	유규연 (원제시오 카르루베)	임지연(안젤라)
곽서진(마르코)	박소현(아나스타시아)	윤재원(라파엘)	정연우(아나스타시아)
김동욱(루카)	박지연(안젤라 메리치)	이규보(미카엘)	정윤아(프란체스카)
김리영(마르시아)	박지윤(엘마)	이서은(가브리엘라)	정택연(안토니오)
김성윤(요셉)	백건우(안드레아)	이우준(베드로)	조은경(엘리사벳)
김지호(미카엘라)	설한별(마리스텔라)	이정원(플로라)	최규연(바로르)
김태연(루카)	손수민(아네스)	이준희(시몬)	최윤호(프란치스코)
김한별 (요한마리아 비안네)	손지안(그레이스)	이하원(크리스티나)	최은세(이사벨라)
나윤재(사도요한)	송다인(엘레이다)	이하은(베니타)	한도윤(다니엘)
남수호(미카엘)	신혁준(아우구스티노)	임동빈(베드로)	한준희(라파엘)
남희호(소화테레사)	심윤재(가브리엘)	임정진(가브리엘)	

- ◎ 청천분회 농산물 나눔 (7월 21일, 오늘)  
 • 농민 주일을 맞이하여 본당과 자매결연을 한 청주교구 청천분회에서 '농산물 나눔'을 하오니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능이 고추장, 감자, 토마토, 각종 효소(오미자·아로니아), 수제 막걸리, 유정란, 꿀, 된장, 훈제 돈육, 떡메치기 등
- ◎ 교적 정리 안내  
 • 현재 본당 소속 교적 중 이사 등으로 인한 불명 세대 및 구역 외 세대 교적을 정리 중입니다. 실거주지 주소와 교적상의 주소가 다른 분들은 본당 사무실에서 정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연락 불가 및 정리되지 않은 교적들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서울대학교 거주불명 교적으로 전출처리 됩니다. (8월말까지 정리에정)  
 • 교구 거주불명 처리 기준  
 → 주소 및 연락처 불명  
 → 교적상 성사 및 관공 기록, 교무금 납부 내역이 5년 이상 없는 세대
- ◎ 7월 21일(오늘): 시설보수 2차 현금

모임

- 7월22일(월): 성령 기도회 (강사: 김정숙 글라라)
- 7월23일(화): 시니어 연례회
- 7월24일(수): 성소 후원회 / 군중 후원회
- 7월26일(금): 예비신자 봉사회
- 7월27일(토): 성찬 봉사회

성가번호 입 당: 440      예물준비: 216, 210      성 체: 178, 166      파 견: 439

화 답 송

주 님 당 신 의 천 막 에 누가 머 물 리 이 까?



**주임 신부의 독서 사목 이야기 (95)**

서평 <연 어>(3)

**쉬운 길과 어려운 길 중에 신앙인이 선택할 길은?**

강물 냄새를 맡은 연어 떼가 초록강을 거슬러 올라간다. 회귀본능을 가진 연어는 어쩌면 초록강의 기억을 간직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초록강은 은빛 연어에게 자신의 존재 이유를 들려준다. 그것은 연어들을 포함한 다른 것들의 배경이 되기 위해서라고..., 배경이 되어준다는 초록강의 말이 마음에 와닿는다. 별이 빛나는 것은 어둠이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이고, 꽃이 아름다운 것은 땅이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임을 주인공 은빛 연어는 어렵듯이 이해한다.

과연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남에게 배경이 되어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대부분은 남에게 배경이 되기보다는 주인공이 되기를, 그래서 남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며, 떠받들어주기를 바란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하였는가? 어느 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보상과 대가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때 높은 벼슬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그분께 청한다. 그러나 그분은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신다. (마르 10, 43) 남을 섬긴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로 그의 배경이 되어줄을 의미한다. 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사랑임을 몸소 보여준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는 온몸으로 타인의 배경이 되어준 위대한 사례라 하겠다. 결국, 타인에게 배경이 되어주는 삶은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으로 여기는 무한 경쟁 사회에서 그리스도교적 대안이다.

강을 거슬러 오르다 거대한 폭포를 만난 연어 떼는 의견이 갈린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쉬운 길과 위험을 무릅 쓰고 폭포를 뛰어오르는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결국, 연어 떼는 은빛연어가 주장하는 데로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기로 한다. "우리가 쉬운 길을 택한다면 우리 새끼들도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할 거고 거기에 익숙해질 거야. 하지만 우리가 험난한 폭포를 뛰어넘는다면 그 순간의 고통과 환희를 우리 새끼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폭포에서 보내는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 새끼들의 뼈와 살이 될 거야."

우리 인생에도 쉬운 길과 어려운 길, 넓은 문과 좁은 문이 놓여 있다. 쉬운 길과 넓은 문은 편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게 해주지만 도전정신을 잃어버린 '1차원적 인간'에 머물 것이다. 반면에 어려운 길과 좁은 문은 상처와 고통을 가져다주지만 열정과 기쁨을 지닌 '주체적인 인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그리스도적으로 말한다면, 십자가의 길을 통해 부활을 맞보고 체험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다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세 악마가 모여 인간을 유혹하기로 했다. 첫째 악마는 인간에게 실패하게 했고, 둘째 악마는 인간에게 시련을 주었지만 인간은 실패나 시련을 이겨냈다. 그런데 셋째 악마가 마침내 인간을 유혹하는데 성공하였다. 그 악마는 인간을 게으름으로 유혹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편안함과 안락함으로 기울어질 때 삶의 의미와 가치는 상실될 것이다.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만이 연어를 연어이게 한다.

청담동 성당 주임 김민수 신부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봉헌 예물		감사 헌금 (07/10 ~ 07/16)	
연중 제 15주일	14,088,350원	정 요한	100,000원
교무금	17,335,000원	장 가브리엘라	300,000원
성소 후원금 ( 10건)	205,000원	김 사도요한	100,000원
교무금 납부 현황		우 미카엘	100,000원
총 세대수	4,136세대	곽 율리아나	50,000원
총 납부세대	1,275세대	김 세실리아	30,000원
지난주 납부세대	6세대	이 마리아	50,000원
총 납부율(%)	30.8%	<b>합계 : 730,000원</b>	